

# 경남기업(주) Keangnam Enterprises, Ltd.

본평가

평가일: 2018.02.12

평가개요	신용등급	평가대상	유효기간
	B+	기업어음	2018.06.30

Analyst	김새롬 책임연구원	02)6966-2455	saerom610@scri.co.kr
	김유진 전문연구원	02)6966-2452	032kj@scri.co.kr
	박춘성 실장	02)6966-2467	cspark1113@scri.co.kr

Latest Rating	평가일	구분	등급
	-	-	-

## 재무요약

(단위: 억원)

(별도기준)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6.9	2017.9
매출액	7,492	9,106	5,624	3,935	2,886	1,965
영업이익	-2,878	-2,616	-3,337	29	-28	-35
EBITDA	-2,746	-2,495	-3,298	64	-2	-12
총자산	15,686	13,121	5,502	4,112	4,284	3,646
순차입금	7,767	8,159	8,224	809	765	914
영업이익률(%)	-38.4	-28.7	-59.3	0.8	-1.0	-1.8
부채비율(%)	719.9	-1,532.8	-157.9	2,173.3	1,590.6	1,634.8
순차입금/EBITDA(배)	N/A	N/A	N/A	12.7	N/A	N/A
유동성커버리지(%)	-46.9	-124.4	-33.8	99.8	247.0	70.8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성자산

주2: 유동성커버리지=(현금 및 금융상품+EBITDA)/단기성차입금

##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경남기업(주)(이하 '동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 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분양경기 둔화, 규제 강화 등으로 저하된 영업여건
- 공공부문 채산성 부진과 부실정리로 취약한 수익성
- 회생절차 종결로 완화된 재무부담
- SM그룹 건설부문과의 시너지 vs. 개발사업 중심의 사업리스크
- 계열 지원가능성

## ■ 신용등급 논리

1951년에 설립된 동사는 2017년 11월 회생절차 종결과 함께 SM그룹으로 편입되었다. 공공 건축, 토목 및 플랜트 공사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단순 도급 위주로 민간 건축공사도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SM그룹 건설부문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주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일 현재, 전반적인 수익구조는 미흡한 수준이다.** 관급공사의 채산성이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부실사업 정리가 지속되는데 기인한다. 2018년에는 부실 정리가 일단락됨에 따라 지표상 수익구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채산성이 낮은 공공부문의 매출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규 분양사업의 매출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회생채권 정리 등을 통해 재무부담(2017년 말 순차입금 -99억원)은 과거 대비 크게 완화된 상태이다.** 2017년 말 기준 차입금은 112억원이나, 회생채권 정리를 위해 계열사인 동아건설산업(주)로부터 차입(5년 만기 회사채, 발행잔액 146억원)한 것으로 실질적인 상환부담은 크지 않다. 2018년에는 주택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용지대금 결제를 시작으로 재무부담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사는 SM그룹 건설계열사와 연계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건설 계열사의 주택사업 분양실적은 우수한 수준(24개 사업지 평균분양률 90% 내외, 단순도급 제외)으로 파악된다. 주요 사업장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분양대금 유입으로 유동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룹 차원의 주택사업 포트폴리오와 양호한 유동성 여력은 동사가 신규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외 지역의 공급과잉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신규 주택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된 점과 신규 수주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 수주물량 소진으로 인해 **계열 전반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동사는 2018년부터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신규사업 추진 시기와 방법, 분양 실적 등은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다.

## ■ 모니터링 요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의 채산성이 개선된 가운데
- 신규 분양사업의 성과가 양호하여 사업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수익성이 회복될 경우

반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신규 분양사업 부진으로 재무부담이 확대되거나
- 그룹 재무부담 확대로 대외신인도가 악화되는 경우

## ■ 주요 평가요소별 검토

### SM그룹 계열 중견 건설업체

동사는 2017년 기준 시공능력순위 48위의 중견 건설업체이다. 2015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여 2017년 11월에 종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SM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동아건설산업(66.0%)이며, 나머지는 우방건설산업(SM상선으로 피흡수합병, 28.3%)과 기타주주(5.7%)로 구성되어 있다.

### 그룹 건설계열사와 연계하여 주택사업 재개

동사는 SM그룹 편입을 계기로 건설계열사와 연계하여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 광주 장지동 아파트개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8년 3월 용지대금 잔금납입과 함께 하반기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임.
- 이 외에 파주 문산 주상복합 도급공사를 포함하여 그룹 내 시행계열사와 연계하여 주택사업을 자체 또는 도급으로 추진할 계획임.

#### [예정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시기	사업규모				용지대금 지급	
		세대수	분양금액	용지 투자액	예정 공사비	전기말	당해년도
광주 장지동 아파트(자체)	2018.09(분양)	676	2,087	376	883	38	339
파주 문산읍 주상복합(도급)	2018.11(착공)	877	1,568	-	1,166	-	-
서대구지구주택재개발(도급 30%)	2019.08(착공)	3,333	8,478	-	5,175	-	-
합계			12,133	376	7,224	38	339

자료: 동사제시(2017.12)

### 그룹 건설계열 분양실적 양호하나, 향후 사업리스크 확대 불가피

현재까지 SM그룹 건설계열사의 주택사업 분양실적은 우수한 수준이며, 분양대금 회수도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그룹 차원의 주택사업 포트폴리오와 양호한 유동성 여력은 동사가 신규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동사 제시자료 기준으로 그룹 건설부문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총 24개 사업지이며, 2017년 준공사업장을 포함한 평균분양률(단순 도급 제외)은 90% 내외임.
- 2017년부터는 주요 사업장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분양대금 유입으로 자금회수 또한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는 분양매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업여건은 동사를 포함한 그룹 전반의 실적변동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동사의 경우 2018년부터 그룹차원의 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 및 재무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신규사업 추진 시기와 방법, 분양 실적 등은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다.

-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해 분양실적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도 확대되고 있음. 여기에 신규 택지공급 중단으로 사업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 수주물량 소진으로 인해 2018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인식 사업장 수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음.

[그룹 분양사업 현황]

(단위: 억원, 세대)

사업시기	사업장명	시행사	시공사	총사업비	세대수	평균 분양률
2017년 준공	포항 영일대 외	하이플러스카드 외	우방 외	10,752	4,767	98.8%
2018년 준공(예정)	남양주 마석역 외	우방산업 외	우방산업 외	11,973	4,567	92.8%
2019년 준공(예정)	광주 송정 외	동아건설 외	동아건설 외	7,740	3,264	99.8%
2020년 이후 준공(예정)	안성 공도 외	우방건설산업 외	우방건설산업 외	6,231	2,392	47.9%
합계				36,696	14,990	89.1%

자료: 동사제시(2017.12)

공종구성 양호하나, 관급 및 도급공사로 수익성 열위

1951년에 설립된 동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공공 토목 및 플랜트에서 민간 건축과 해외 공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투입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토목 및 플랜트 공사를 주력으로 하고, 민간 건축사업은 단순 도급 위주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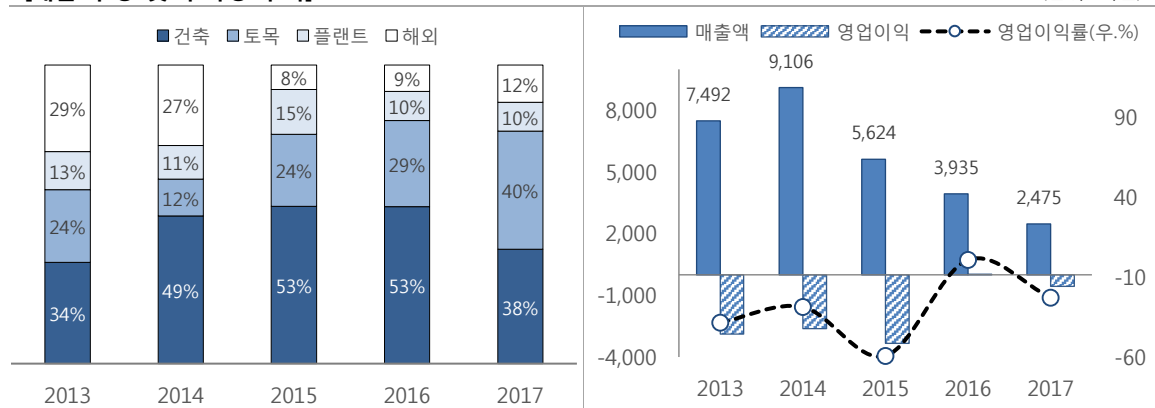
- 과거 주택개발사업(브랜드명: 경남아너스빌)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2013년 주택 수주잔고가 2조 5천억원을 상회하기도 하였음.
- 2015년부터 신규 주택사업 추진이 제약되고,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속된 가운데 관급공사의 채산성도 부진한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큰 폭의 외형 감소와 취약한 수익성을 기록하였음.

향후에는 부실사업 정리가 일단락되고,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신규 사업 수주도 재개됨에 따라 전반적인 영업실적은 과거 대비 개선될 것이나,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 2018년에는 채산성이 낮은 공공부문의 기존 공사 매출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규 분양사업의 매출인식은 하반기부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매출 구성 및 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자료: 사업보고서 및 동사제시(2017.12)

###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재무부담 확대 전망

회생채권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부담은 과거 대비 크게 완화된 상태이다. 기존 주력사업인 공공 토목 및 플랜트 공사의 경우 투입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나, 2018년부터 아파트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재무부담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말 현금성자산과 차입금은 각각 212억과 112억원임.
- 차입금의 경우, 회생채권 정리를 위해 계열사인 동아건설산업(주)로부터 차입(5년 만기, 발행잔액 146억원)한 것으로 실질적인 상환부담은 크지 않음.

부실정리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지표가 취약하고, 금융기관 접근성 또한 제한적이어서 자체 재무탄력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신규 부동산개발사업을 동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룹 특히 건설부문의 유동성여력에 기반한 대체자금조달여력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차입금	8,150	8,695	8,930	1,167	112
순차입금	7,767	8,159	8,224	809	-99
부채비율(%)	719.9	자본잠식	자본잠식	2,173.3	399.3
차입금커버리지(배)	N/A	N/A	N/A	12.7	N/A

주1: 2017년은 가결산 자료임

자료: 감사보고서 및 동사제시(2017 .12)

주2: 차입금커버리지=순차입금/EBITDA

주3: 2017년 말 PF관련 우발채무는 1,018억원임.

### 유동성위험 관리 부담 보통 수준

평가일 현재, 단기성차입금이 전무한 가운데 현금성자산(212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소요자금에 대한 대처는 일정수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기도 광주 장지동 아파트개발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한 잔금(339억원) 납부와 추가 공사비 조달 등으로 외부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체 재무탄력성은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그룹 특히 건설부문의 유동성여력에 기반한 대체자금조달여력을 통해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함.

#### [유동성 지표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기성차입금	5,034	1,575	7,660	423	-
현금 및 금융상품	384	536	705	358	212
EBITDA	-2,746	-2,495	-3,298	64	-534
단기성차입금 비중(%)	61.8	18.1	85.8	36.3	-
유동성커버리지(%)	-47.0	-124.4	-33.8	99.8	N/A

주: 2017년은 가결산 자료임

자료: 감사보고서 및 동사제시(2017 .12)

**그룹의 자원가능성 긍정적**

1998년 설립된 (주)삼라를 모태로 성장한 SM그룹은 부실정리대상기업을 인수하여 급격한 외형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공격적인 M&A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계열 전반의 재무부담이 과중하고, 계열사 간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 재무위험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 해운 등 비 건설계열사에 건설 계열사를 합병시키고 있어 사업위험도 공유되는 양상이다.

- 그룹 사업구조는 크게 제조(티케이케미칼, 남선알미늄, 신광, 경남모직, 에스엠생명과학 등), 서비스(하이플러스카드 등), 해운(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등), 건설(삼라, 우방, 동아건설산업 등)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룹의 주력인 건설과 해운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이나,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은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까지 동사가 속한 건설부문의 주택사업 분양실적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주요 사업장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분양대금 유입으로 자금회수 또한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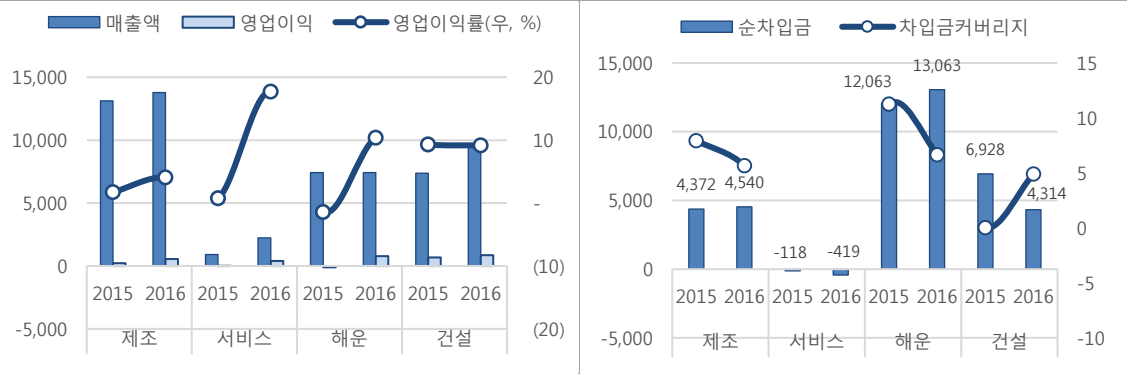
- 2004년 진덕산업(현, 우방산업)를 시작으로 2010년 우방, 2011년 신창건설산업, 2016년 성우종합건설, 태길종합건설, 동아건설산업, 2017년 동사를 연이어 인수하였음.
- 2017년 말 기준 그룹 건설부문은 동사와 동아건설산업을 비롯해 7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매출액 중에 분양매출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기준)은 40%를 상회하고 있음.

[SM그룹 부문별 수익성]

(단위: 억원)

[SM그룹 부문별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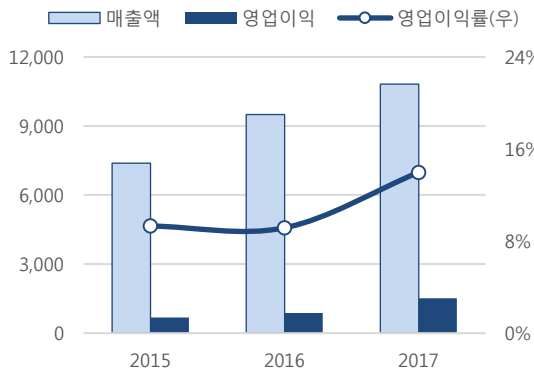


주: 제조 - 티케이케미칼, 남선알미늄, 신광, 경남모직, 에스엠생명과학, 벡셀 6 개사 합산  
 서비스 - 하이플러스카드, 산본역사 2 개사 합산  
 해운 - 대한해운, 대한상선 2 개사 합산  
 건설 - 우방,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우방건설, 삼라, 성우종합건설 7 개사 합산

자료: 각사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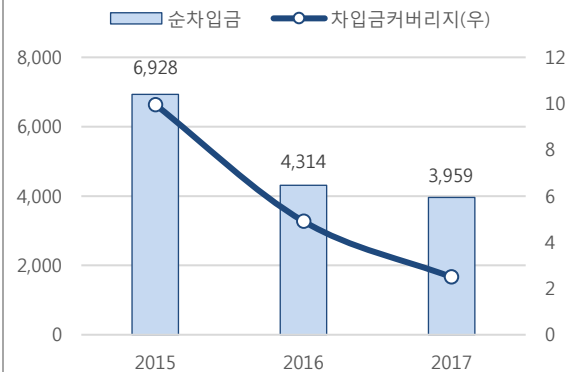
[건설부문 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건설부문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억원)



주1: 2017년은 가결산 자료임

주2: 경남기업 제외

자료: 감사보고서 및 동사제시(2017 .12)

종합할 때, 급격한 외형확장으로 그룹 차원의 사업 변동성이 높고 재무부담도 존재하고 있으나, 대한해운을 비롯한 주력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2017년 이후 우수한 분양실적을 바탕으로 한 건설 부문의 자금여력도 그룹 재무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사가 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및 재무적 측면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동사 신용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undamental Review

단기신용도 <b>B+</b>	Fundamental <b>bb+</b>
--------------------	---------------------------

Mapping Grid

사업위험		aaa	aa	a	bbb	bb	b
매출액(조원)						√	
매출 및 이익 변동성					√		
사업 기반	시공능력순위				√		
	다각화				√		
	경쟁역량					√	
재무위험		aaa	aa	a	bbb	bb	b
수익성	영업이익/매출액(%)						√
재무 정책	운전자금관리					√	
	유동성 리스크 관리					√	
	투명성 및 안정성					√	
레버 리지	조정부채비율(%)					√	
커버 리지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						√
모형신용도		aaa	aa	a	bbb	bb	b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 관리 수준	양호	보통	미흡
-------------	----	----	----

Mapping Grid: 건설

사업위험		가중치	aaa	aa	a	bbb	bb	b
매출액(조원)		10%	≥10	≥5	≥1	≥0.5	≥0.05	<0.05
매출 및 이익 변동성		15%	매우 낮음	상당히 낮음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업 기반	시공능력순위	5%	≤3	≤7	≤20	≤70	≤150	>150
	다각화	10%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경쟁역량	10%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재무위험		가중치	aaa	aa	a	bbb	bb	b
수익성	영업이익/매출액(%)	10%	≥15	≥10	≥6	≥3	≥2	<2
재무 정책	운전자금관리							
	유동성 리스크 관리	20%	매우 보수적	상당히 보수적	보수적	비교적 보수적	공격적	매우 공격적
	투명성 및 안정성							
레버 리지	조정부채비율(%)	10%	≤150	≤200	≤300	≤450	≤800	>800
커버 리지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	10%	≤2	≤4	≤6	≤10	≤20	>20



본 평가는 서울신용평가(주)가 공시한 건설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 홈페이지 [www.scri.co.kr](http://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차입금 현황 등입니다.

#### [단기채무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 의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 C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8년 1월 16일이고, 계약체결일은 2018년 1월 15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8년 2월 12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0건, 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평가수수료 비중은 당사의 직전연도 평가수수료의 0.0%에 해당합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비평가용역 수수료 비중은 당사의 직전연도 전체 비평가용역 수수료 총액의 0.0%에 해당합니다.

#### [유의사항]

-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평가의견 및 간행물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간행물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3)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간행물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본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에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